

22일 오전 3시45분 대망의 챔스리그 결승



'더블'이나 '설욕'이나

'꿈의 무대에서도 우승해 더블을 달성하겠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규리그 우승 좌절을 딛고 시원한 설욕전으로 창단 후 처음 정상에 오르겠다(첼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시가 2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3시45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단판 승부로 치러질 결승에서 이기는 팀이 유럽 최강자로 인정받기에 양팀은 총력을 다잡고 있다.

맨유는 첼시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정규리그 우승컵을 차지한 여세를 몰아 챔피언스리그까지 제패해 '더블'(2관왕)을 완성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1967-1968시즌에 처음 꿈의 무대 주인이 됐던 맨유가 우승한다면 '트레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FA컵 3관왕) 위업을 이



박지성

맨유, 지성 선발 유력...3번째 우승 기대

첼시, 정규리그 좌절 딛고 첫 정상 노려

됐던 1998-1999시즌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우승컵을 안는다.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인연이 없다. 최근 4년간 네 차례(2004, 2005, 2007년)나 준결승에 오르기도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1905년 창단 이후 103년 만의 첫 우승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맨유는 정규리그 31골로 득점왕에 오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첼시 격과에 앞장선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임에도 뛰어난 골 감각과 현란한 드리블, 강력한 슈팅을 자랑하는 그의 활약이 맨유의 명운을 가를 공산이 크다.

또 철벽 수비벽을 구축한 리오 퍼디낸드와 부상에서 회복된 네마나 비디치는 첼시의 공세를 막는다.

맨유 승리의 '수호신'으로 떠오른 박지성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FC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뛰었던 박지성은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다.

베테랑 라인인 키스보다 활동량이 훨씬 많은 데다 포지션 경쟁자인 루이스 나니는 '박치기 퇴장'으로 퍼거슨 감독의 눈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 현지 언론도 박지성의 선발 출격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첼시는 '검은 폭격기' 디디에 드로그바와 대포알 슈트를 장착한 미드필더 미하엘 발라크를 내세워 정규리그 우승을 좌절시켰던 맨유에 진 빚을 갚겠다는 각오다. 드로그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6골을 사냥해 득점 부문 1위인 호날두(7골)를 바짝 쫓고 있다. 발라크는 지난 달 26일 맨유와 정규리그 36라운드 홈경기 때 혼자 두 골을 뽑아 2-1 승리에 일등공신이 됐다.

발라크는 박지성이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과 함께 경계대상으로 꼽혔던 선수다.

박지성이 소속팀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제패로 유럽 클럽팀 왕중왕전인 슈퍼컵에서 UEFA컵 챔피언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의 '태극전사 듀오' 김동진, 이호와 한국인 선수끼리 대결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최종 엔트리 25명 오늘 발표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요르단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3차 예선 3차전 홈 경기(31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 나설 최종 엔트리 발표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허정무 감독이 애초 이날 하기로 했던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루 늦추겠다고 알려왔다"며 "김남일(빛

고베)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 출장을 떠났던 정해성 코치가 입국하면 최종 회의를 걸쳐 20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루 연기한 것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나선 '예비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라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내 발차기가 성공"

19일 광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린 5·18태권도대회 여자고등부 밴텀급경기에서 전남체고 김이 나(왼쪽)가 강원체고 백민에게 발차기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체고 女체조 전국 최강

美 가이 100m 첫 우승

종별선수권 여고 종합 우승

남고부 단체 이쉬운 준우승

광주체육고등학교 여자체조가 제63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육고(홍보미·강은미·전단비·양혜림·탁보배·박은경·김혜린)는 19일 제천시내체육관에서 끝난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 200.70점을 받아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박은경(여·광주체고 2년)은 개인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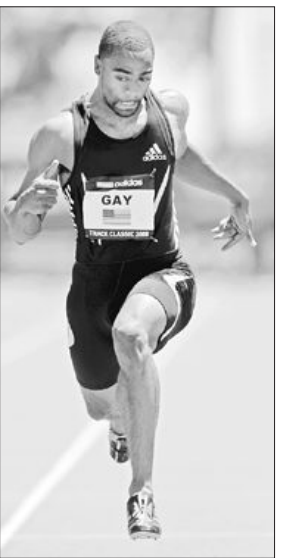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와 단체우승을 따내 3관왕에 올랐으며 전단비(여·광주체고 3년)는 개인종합 3위, 도마 2위, 이단평행봉 3위, 평균대 2위, 마루 2위 등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적을 거둬 단체 종합우승에 힘을 보탤다.

광주체고는 남자고등부(이강·김희훈·나현웅·이형주·배가람·양학선)도 319.90을 획득, 단체종합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양학선(광주체고 1년)은 도마와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또 전남대는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 96.500점을 획득해 동메달을 따냈으며 배물음(전남대 1년)은 여자대학부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징을 립픽 남자 육상 100m 금메달 0순위 후보 타이슨 가이(26·미국·사진)가 시즌 첫 100m 레이스에서 10초05로 우승했다.



가이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 홈디포센터에서 벌어진 2008 아디다스 트랙 클래식 100m 결승에서 10초05로 결승선을 통과, 다비스 패튼(미국·10초06), 데릭 앳킨슨(바하마·10초16)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초85로 100m를 제패하고 200m와 400m 계주 등에서 3관왕에 오른 가이는 올해 200m에 주력해 오다 이날 처음으로 100m를 뛰었다.

가이는 이날 두 차례 부정 출발로 약간 움츠렸지만 출발부터 상대 선수를 압도하며 레이스를 마쳤다. 가이의 이 부문 최고 기록은 2006년과 2007년 두 번이나 짝은 9초84다.

가이는 또 200m 결승에서도 20초08로 우승하는 등 단거리에서 여전한 기량을 뽐내면서 다음달 29~30일 열리는 미국 대표팀 선발전을 앞두고 궤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히딩크, 러와 계약연장 진통



20일(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일궈냈던 거스 히딩크(62)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러시아축구협회와 계약 연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애초 러시아 대표팀과 7월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지난 3월 러시아축구협회와 구두로 2010년까지 사령탑을 맡기로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지난 주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축구협회장이 계약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 내 직업을 잃는다 해도 두렵지 않다. 다양한 클럽과 국가 대표팀으로부터 많은 제의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Table with multiple columns containing news snippets, likely a 'Sports Brief' or 'Sports News' section.